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봉사

(금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시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움직임의 지표인 세계정세를 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주님의 회복의 진리를 확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김

성경: 슄 1:18-21, 3:9, 4:6-7, 5:5-11, 12:1, 행 5:31, 17:26-27상, 마 24:14

I.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특히 성경의 계시와 신성한 진리와 참되고 합당한 신학과 관련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시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A. 니케아 신조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신학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다음의 다섯 가지 중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1. 생명을 주시는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음' — 요 7:39하.
2.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 — 고전 15:45하.
3. 바르는 관유로 예표된 복합되신 영 — 출 30:23-25.
4. 로마서 8장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은 모두 생명을 주시는 복합되신 영을 가리킴.
5. 일곱 영 — 계 1:4.

B. 믿는 이들은 불완전하고 비성경적인 신학에 의해 저지되어, 하나님의 중심 계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관해 위에 언급된 다섯 가지 중점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이다.

C.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러한 중대한 요점들을 회복하는 것이다.

D. 주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중심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 되심과 포함과 강화의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다.

E. 주님의 현재의 회복과 관련하여, 우리는 모두 최선의 것으로 새로워져야 하며, 우리의 남은 신학이나 회복에 대한 우리의 남은 이해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

II. 스가랴서는 신성한 역사(歷史)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길이 바로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건축이 은혜의 꼭대기 들이신 그리스도, 곧 일곱 배로 강화되신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완결될 것임을 계시한다 — 슄 4:6-7, 12-14, 3:9, 12:1, 10, 계 4:5, 5:6.

A.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의 초점은 예수님의 증거인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그리스도의 두 번 오심이다 — 슄 4:2-3, 6:12-13, 9:9, 11:7-13, 12:10, 14:3-5, 9.

- B. 우리는 바빌론이 사업이나 상업의 사악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사업이나 상업에는 탐심과 사기와 돈을 사랑함이 뒤따른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돈을 벌기 위한 매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슥 5:5-11, 딤편 3:3, 8, 6:5-10, 행 11:29-30, 20:33-34, 딤후 3:2-4, 히 13:5, 고후 2:17, 12:15, 비교 왕하 5:15-27.
1. 바빌론에서 파는 상품 중 첫째 항목은 금이고 마지막 항목은 사람들의 혼이다. ‘사람들의 혼’은 하나님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무시하면서 고용되기 위해 자신을 파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계 18:12-13, 비교 벧후 2:3, 15, 비교 눅 12:13-21.
 2.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바빌론 사람들에게서 배운 사업상의 사악함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빌론(시날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 슥 5:10-11, 창 11:2, 9.
- C.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네 뿔을 깨뜨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마지막 장인(匠人)이시다. 네 뿔은 왕들이 있는 네 왕국, 곧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다. 이 네 제국은 또한 하나님의 선민을 손상시키고 멸망시킨,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나오는 네 부분으로 된 거대한 인간 형상, 요엘서 1장 4절에 나오는 메뚜기들의 네 단계,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네 짐승으로 상징된다 — 슥 1:18-21.
1. 네 장인들은 이 왕국들과 그 왕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솜씨이다. 앞의 세 나라(바빌론, 메대-페르시아, 헬라)는 각각 다음에 나오는 왕국이 솜씨 좋게 점령하였다 — 단 5장, 8:3-7.
 2. 네 번째 장인은 손대지 않고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일 것이며, 이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복원된 로마 제국을 분쇄하심으로써 인간 정부의 총체인 거대한 인간 형상을 분쇄하실 것이다 — 단 2:31-35, 44-45.
 3. 분쇄하는 이 돌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이들과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이기는 이들은 그분의 시대적인 도구로서 이 시대를 끝낼 것이다 — 율 3:11, 슥 14:5, 계 12:1-2, 5, 19:11-21.
 4.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기는 신부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는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인간 정부 총체를 분쇄하신 후에, 태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우심으로 온 땅을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왕국은 신성한 역사의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단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 계 20:4, 6, 21:10.
 5. 이와 같이, 거대한 인간 형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대치될 것이다.

III. 세계정세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의 지표이다 — 행 5:31, 17:26-27상.

- A. 불법의 비밀은 오늘날 민족들 가운데서와 인간 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불법은 결국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로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 살후 2:3-10.
1.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 곧 사탄의 화신일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박해하고 멸할 것이다 — 단 8:24, 계 12:17, 13:7.
 2.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를 땅에 내던질 것이다 — 단 9:27, 8:12.
 3. 적그리스도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을 간파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는 말을 할 것이다 — 단 7:8, 20, 25.

4.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마멸시킬 것이다 — 단 7:25.
 5.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혼이 마지막 시대에 그들의 활동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 계 18:11-13, 딤후 3:5, 비교 슄 12:1.
- B.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거대한 형상의 열 발가락으로 예표된 열 왕은 부흥된 로마 제국의 마지막 가이사가 될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다 — 계 17:10-14.
1. 적그리스도와 인간 정부의 총체를 분쇄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회복은 반드시 유럽으로 확산되어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2. 미국과 유럽과 극동은 현재의 세계정세에 영향을 주는 삼대 요인이다. 회복은 미국과 극동에서 뿌리를 내렸지만, 유럽은 공백 상태에 있다.
 3.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거대한 인간 형상에 관한 이상이 완전히 성취되는 데 있어서, 유럽은 다른 어떤 나라나 민족보다 지극히 더 중요하다. 거대한 인간 형상의 두 발을 분쇄하는 것은 인간 정부 전체를 분쇄하는 것이다.

IV. 주님의 회복의 진리를 확산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창조물 전체에 회복과 복원을 가져오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 마 24:14, 28:19, 19:28, 사 11:9.

- A. 그리스도의 승천 직후에 복음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 이 네 가지가 네 말에 탄 기수들처럼 달리기 시작했고,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달릴 것이다 — 계 6:1-8.
1.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에 왕국 복음이 확산되고 달리고 경주하는 것이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의 핵심이다 — 마 24:14.
 2.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있는 첫째 봉인의 흰색 말로 상징된 왕국 복음이 이 시대의 끝인 대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 B. 우리는 부분적인 복음이 아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한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완전한 복음은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또한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여,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신부이자 아내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복음이다 — 딤후전 1:3-4, 롬 1:1, 5:10, 계 1:10-11, 21:2-3, 9-11, 22:1-2.
- C. 사실상 복음은 신성한 모든 진리를 포함한다. 신약 전체가 복음이고, 복음인 신약은 구약으로 예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성경 전체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 D.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이다 — 엠 3:8-11.
- E.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기는 이들이 흰색 말을 탄 기수들이 된다 — 계 19:11, 13-14, 비교 롬 10:15.
- F. 주님께서 그분의 복원을 가져오는 그분의 회복을 위하여 복음의 신성한 진리들을 배우고 그 진리들을 모든 곳에 확산하고자 하는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 사 11:9.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니케아 신조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신학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다음의 다섯 가지 중점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음

생명을 주시는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부활) 전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음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부활) 이전에는 아직 계시지 않았다(요 7:39).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 중 가장 마지막 명절이자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과 관련된다. 초막절은 매우 즐거운 명절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거둔 수확을 누리 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이 명절을 지켰다. 그들은 칠 일 동안 함께 기뻐했다. 마지막 날은 명절 중에 큰 날이었다. 주 예수님은 서서 그날 절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외치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의미가 풍성하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던 사람들이 여전히 목마르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여전히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들의 일과 사업에 성공하거나 유명해진 후에, 그들의 삶이 여전히 공허하다고 느낀다. 솔로몬 왕과 같이 그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 1:2, 14)라고 말했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이 목마르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갈증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고, 명절 큰 날에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요 7:37)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오직 주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시다. 오직 그분만이, 이제 삼십을 갓 넘은 이분만이 “나를 믿는 사람은 ...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설명을 덧붙여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나 성령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단순히 ‘그 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비록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지만’, 그 영께서 거기에 계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어떤 기대를 암시해 준다.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는 때인 그분의 부활의 날이다(눅 24:26). 주 예수님은 바로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육체가 되셨고 그분의 신성한 영광은 그분의 육체의 껍질 속에, 즉 그분의 인성의 껍질 속에 감추어졌다. 그분께서 죽으셨을 때 이 껍질이 깨어졌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영광이 해방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영광스럽게 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기대하고 있

던 것은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지만, 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영광스럽게 되셨을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영이 있게 되시는 것이었다.

마지막 아담(육체 안의 그리스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

오늘날의 신학이 충분히 강조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두 번째 핵심 중점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후반절에서 계시되듯이,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다(이것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라고 말하며, 그다음 구절에서는 복합적인 신성한 칭호인 ‘주 영’을 사용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후반절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 습니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9절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는 예언의 분명한 성취이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 이 되셨다.

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신학자들과 교수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근거한,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를 반대 한다. 심지어 두 동역자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반대해 왔다. 이 동역자들 중 한 명은 결국 우리를 대적하는 이가 되었는데, 그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번은 이 사람이 나에게 자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삼신론의 이단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동역자는 내가 영 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세 곡의 찬송으로 인해 고심했다(한국복음서원 찬송가 371, 400, 541 장). 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후 그가 내게 경고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전한다면, 기독교가 우리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형제님, 나는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려는 부담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 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을 따른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내게 이 진리를 가르칠 자유 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신약은 그리스도의 두 번 되심에 대해 말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육체 안에 계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 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과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 셧음을 믿고 가르쳐야 한다.

관유로 예표된 복합되신 영

세 번째로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올리브기름과 네 종류의 향료와 그 효능의 복합체인) 관유로 예표된 복합되신 영에 관한 핵심 중점을 충분히 강조하는 신학은 오늘날 하나도 없다. 생명 주시는 영은 단순하지 않으시다. 이 영은 복합된 영이시다. 마지막 아담은 사람이셨지만, 생명 주시는 영은 신성하시다. 그러므로 이 영은 두 본성, 곧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가진 영이 신 것이 틀림없다. 이 두 본성은 단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한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예표에 의 해 암시된다.

이 관유는 한 가지 요소로 된 것이 아니라 복합물이다. 한 가지 요소로는 관유가 될 수 없다.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관유는 한 가지 주재료인 한 힌의 올리브기름과 네 종류의 향료—몰약, 육계, 창포, 계피—로 복합된 복합물이다. 성경의 예표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흐르는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며, 육계는 그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의미한다. 저지대의 습지나 진흙 속에서 자라는 갈대인 창포는 하늘을 향하여 자라나므로 부활을 의미한다. 계피는 물리치는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을 의미한다. 계피는 일종의 나무껍질로서 뱀들과 벌레들을 물리치는 방충제로 사용된다. 따라서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특히 물리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분의 부활은 사탄, 곧 뱀을 물리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네 가지 향료들은 한 힌의 올리브기름과 복합되어 다섯 가지 요소들로 된 한 관유가 된다.

이 복합된 관유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 일(1)(한 힌의 올리브기름)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의미하는 숫자 사(4)(네 향료)를 갖는다. 향료의 양이 각각 오백 세겔로서 세 단위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또 삼(3)이라는 숫자를 본다. 몰약이 오백 세겔, 육계가 이백오십 세겔, 창포가 이백오십 세겔, 계피가 오백 세겔이다. 따라서 향료의 양은 오백 세겔씩 세 단위로 이루어졌거나, 오백 세겔 곱하기 삼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삼(3)이라는 숫자는 삼일 하나님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오백 세겔의 두 번째 단위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신성한 삼일성의 중간에 계시며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함) 각각 이백오십 세겔이 되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성경에서 이(2)는 증거의 숫자이다. 더욱이 이 복합된 관유에는 한 힌의 올리브기름과 네 가지 향료들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오(5)라는 숫자가 있다. 오(5)라는 숫자는 오백 세겔에서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오(5)는 책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십계명은 두 돌판에 각각 다섯 계명씩 쓰여 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다섯 명과 어리석은 처녀 다섯 명,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앞의 모든 내용을 볼 때 일(1), 이(2), 삼(3), 사(4), 오(5)의 숫자들이 출애굽기 30장의 복합된 관유의 예표에서 모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상 일종의 예언인 이 구약의 예표는 신약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관유의 예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출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는데, 이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 그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효능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생명 주시는 영은 구약에서 관유로 예표된 복합되신 영이시다.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은 모두 생명 주시는 복합되신 영을 가리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 영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기 같은 분이 되셨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은 모두 생명을 주시는 복합되신 영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2절에 생명의 영이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이 있다. 이들은 다섯 인가 아니면 하나인가? 생명 주시는 영은 생명의 영이라고 불리시며, 생명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은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하신다. 이것이 바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라고 말하고, 18절은 “주 영에게서” 우리가 변화된

다고 말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영’과 같은 칭호는 복합된 신성한 칭호이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또한 그 영이시다.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공기 같은 분이 되신 그리스도, 주님이시자 그 영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영 자신께서는 인성이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성의 요소, 그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분의 부활과 그 능력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영께 더해지고 복합되어 복합되신 영을 산출했다. 오늘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일곱 영

오늘날의 신학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관한 다섯 번째 핵심 중점은 하나님의 일곱 영(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 비교 일곱 배의 햇빛—사 30:26)이다(계 1:4, 3:1, 4:5, 5:6).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분배하실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영이 되신 후에,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유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수행하실 수 있었다. 특별히 그분은 교회를 산출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그러나 교회가 산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하락하게 되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하락에 대하여 말한다. 이러한 하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이시자 그 영이신 생명 주시는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되었다.

천년왕국에 관련된 예언인 이사야서 30장 26절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달의 빛과 같으리라”라고 말한다. 이사야서에서는 일곱 배의 햇빛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배의 영이 있다. 생명 주시는 영은 교회를 산출하는 데에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시다. 그러나 교회가 하락했을 때에는 이 강한 영이 일곱 배로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단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뿐 아니라,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셨다. 일곱 영께서 어린양의 일곱 눈이신 것은(계 5:6) 일곱 영과 그리스도가 한 인격임을 나타낸다.

성경에 어긋나는 불완전한 신학의 저지로 인해 하나님의 중심적인 계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에 이르지 못함

천주교, 개신교 교파들, 형제회, 오순절 교회들, 모든 자유 단체들은 불완전하고 비성경적인 신학에 의해 저지되어, 하나님의 중심 계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관해 위에 언급된 다섯 가지 중점을 놓치거나 소홀히 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중심 경륜에 대하여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중심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으며, 생명 주시는 영은 일곱 배로 강화

되신 영이 되셨음을 보아야 한다. 이 영은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오늘날의 신학은 이러한 중심 계시 모두에 무관심하다. 천주교, 개신교 교파들, 형제회, 오순절 교회들, 모든 자유 단체들은 우리가 이번 메시지에서 다룬 하나님의 영에 관한 다섯 가지 중점들을 놓치고 소홀히 하고 반대하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주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움직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 중점들의 회복이다.

나는 모든 동역자들과 장로들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회복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간단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중 누구도 자신의 낡은 신학이나 회복에 대한 낡은 이해로 인해 현재의 주님의 회복에 관한 어떤 것이 제한받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는 한 무리의 하나님-사람들을 얻으심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교회에 관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그분을 위해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는 한 무리의 하나님-사람들을 얻으셔야 한다. *(고봉 메시지, 1권, 회복의 이상 1,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107-116쪽)*